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의 공간조형과 전후인식

— 〈산골마을〉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 승 창*

目 次

1. 서론
 2. 〈산골마을〉의 폐쇄성
 3. 유토피아로서의 〈아프리카〉
 4. 근원의 공간으로서의 〈산골마을〉
 5. 결론
-
-

1. 서론

오에 겐자부로(이하, 오에) 문학은 상상력과 방법적인 글쓰기를 통해 전후의 시대상황을 암유하는 우의적인 세계를 그려왔고, 흔히 〈방법화된 상상력〉의 글쓰기라고 평가되는 오에의 작품세계는 오에론의 중심을 이뤄왔다.¹⁾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과 시대인식의 결합은 「사육(飼育)」(『文学界』1958.1)이나 『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芽むしり仔撃ち)』(『群

*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1) 오에는 『洪水はわが魂に及ぶ』(新潮社 1973)와 『状況』(岩波書店 1974)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상황에의 능동적인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상상력에 의한 현실인식의 전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오에의 발언에 의해 『国文学』(1979년2월호)에서 〈방법화된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오에 문학을 다루게 되고, 이후 〈방법화된 상상력〉은 오에론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大江健三郎(1981)「想像力の日本人」『大江健三郎同時代論集9一言葉と状況』岩波書店, p.266-268./ 초출 『世界』1973.2-1974.1.

像』1958.6)와 같은 초기문학의 시·공간설정에 그 원형이 나타나고 있다.²⁾

그 중에서도 오에의 초기문학에 보이는 현실세계와 차단된 〈산골마을(谷間の村)〉은 전쟁말기의 시간에 전후일본의 시대상황을 중첩시키며 우의적인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특히 〈산골마을〉이 설정되는 최초의 작품인 「사육」에서는 근대국가 일본을 상징하는 〈읍내(町)〉와의 공간적인 단절을 통해 〈산골마을〉의 원시공동체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산골마을〉을 무대로 한 작품 군을 오에의 전후인식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사육」의 〈산골마을〉에 대해 「자유의 불가능성의 추구」라는 전후인식이 만들어낸 원시공동체³⁾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구치 다케히코(野口武彦)는 〈산골마을〉에서 숲(森)의 원형, 즉 오에가 초기문학 이후에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근거지로서 제시하는 신화적 세계관의 상상력⁴⁾을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점은 오에의 공간조형을 분석하는 기본개념으로 자리 잡아, 전자는 초기문학의 공간조형의 분석에 후자는 중기 이후의 공간조형의 분석에 많은 논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상기의 〈산골마을〉에 관한 논점에는 폐쇄된 공간조형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향에의 회구이라는 의미와 그러한 폐쇄적인 공간조형이 일본인들의 근원의 장소로 변용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기문학에서 주인공들이 이상향의 세계로 지향하는 〈아프리카〉에도 원시공동체라는 의미와 제국주의 식민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장소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며⁵⁾ 이는 전후일본의 시대적 폐쇄성에 일정한 형태를 부여하려고 하는 오에의 문학적 주제에서 볼 때, 〈산골마을〉과 공간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시공동체적인 공간창출은 1960

2) 전쟁말기, 도시문명과 대립하는 〈산골마을〉, 근대세계에서 배제된 주변적인 존재는 전후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모색하는 오에 문학의 기본 모티브이다. 오에는 『芽むしり仔撃ち』에 나타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자신의 문학 활동의 기본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大江健三郎(2001) 「神話の宇宙で私を探す試み」 『大江健三郎・再発見』 集英社, p.18.

3) 黒子一夫(1989) 『大江健三郎論』 彩流社, p.125.

4) 野口武彦(1971) 「バーナムの森が動くとき」 『吠え声叫び声・沈黙』 新潮社, p.183.

5) 츠게 테루히코(拓殖光彦)는 오에 문학에 그려지는 〈아프리카〉를 대항의 장소와 자연에의 동경의 장소로 이분화하고 있다. 그의 분류법에 따르면, 대항의 장소로서의 〈아프리카〉는 백인지배에의 저항을 의미하며 동시에 감금상태에 있는 일본의 외부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에의 동경의 장소로서의 〈아프리카〉는 『個人的な体験』에 그려지는 현실도피의 이상향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한다. 拓殖光彦(1969.9) 「戦後世代の文学キー・ワード—大江健三郎」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p.95-96.

년대 중반 이후, 천황이나 근대국가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비추어 내는 <중심과 주변>의 논리로 이어져 신화적인 세계로 제시되는 <산골마을>의 모티브⁶⁾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에 문학의 공간조형이 갖는 의미는 상기의 두 가지 주된 논점에 의해 분절되어, 초기문학의 <산골마을>에 보이는 폐쇄적인 공간조형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향의 희구와 중기 이후의 신화적 세계로서의 <산골마을>과의 인과관계 및 그 변용과정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오에 문학의 공간조형이 갖는 전후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그 한계를 <산골마을>과 <아프리카>를 시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오에 문학에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속학적인 경향과 상기의 공간조형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오에 문학의 공간조형에 어떠한 의미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 <산골마을>의 폐쇄성

오에의 초기문학에 보이는 전후일본의 현실투영과 그 인식은 오에 자신이 초기문학의 주제로 제시하는 <감금상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감금상태>는 전후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나타내는 메타포⁷⁾로 작품의 등장인물을 폐쇄공간에 위치시켜, 현실세계의 절망적인 상황과 억압된 내면을 극명하게 표출시키는 작법⁸⁾이다.

6) 柘植光彦(1990) 「大江健三郎の<キーワード>—谷間の村」 『国文学』學燈社, p.124.

7) 오에는 초기 단편집인 『죽은 자의 사치(死者の奢り)』(1958)의 후기에서 「감금되어진 상태, 닫혀진 벽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일관된 주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오에의 전후인식에 대해 쿠로코 카즈오(黒古一夫)는 <55년 체제> 성립 이후의 일본제국주의 부활의 움직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던 대미 종속관계라는 시대의 절망감을 대상화 한 것이 <감금상태>라는 주제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大江健三郎(1958) 『死者の奢り』文芸春秋新社./ 黒古一夫(1989) 『大江健三郎論』彩流社, p.117.

8) 와타나베 히로시(渡辺広士)는 오에 문학의 <감금상태>는 현실세계에서 격리된 내적세계를 의미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가고, 미국에 의한 종속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전후 일본사회의 폐쇄성과 그러한 시대상황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내면적인 폐쇄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渡辺広士(1994) 「大江健三郎の内的世界」 『大江健三郎』審美社, p.37.

초기문학의 〈산골마을〉도 이러한 현실세계의 억압상황과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실세계와 대립하는 공간조형, 즉 〈감금상태〉를 통해 근대세계의 지배·종속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사육」의 〈산골마을〉은 문명세계를 상징하는 〈읍내(町)〉와 원시공동체적 세계를 상징하는 〈산골마을〉과의 공간적 차단이라는 〈감금상태〉 설정을 통해 근대문명사회에 대한 비판과 현실세계의 절망적인 상황을 동시에 투영해 내고 있다.

우리들 마을에서 《읍내》로 가는 지름길인 구름다리가 산사태로 끊기자, 우리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분교장은 폐쇄되고, 우편물은 정체되고, 그리고 우리들 마을 어른들은 피치 못할 경우에만 약한 지반의 산골짜기 좁은 길을 걸어 《읍내》에 가야만 했다. 《읍내》의 화장터에 사체를 운반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읍내》와 완전히 격리되어버린 것은 우리들 마을, 오래됐지만 미성숙한 개척촌에게 있어서는 절실한 고민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우리들, 마을 사람들을 《읍내》에서는 더러운 동물처럼 혐오하고 있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좁은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사면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집락에 모든 일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여름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분교장은 닫혀져 있는 편이 좋았다.

(僕らの村から《町》への近道の釣橋を山崩れが押しつぶすと、僕らの小学校の分教場は閉鎖され、郵便物は停滞し、そして僕らの村の大人たちは、やむをえない時、山の尾根づたいに細く地盤のゆるい道を歩いて《町》へたどりつくのだった。《町》の火葬場へ死者を運ぶことなどは思いもよらない。/ しかし《町》からすっかり隔絶されてしまうことは僕らの村、古いが未成育な開拓村にとって切実な悩みを引きおこしはしなかった。僕ら、村の人間たちは《町》で汚い動物のように嫌がられていたのだし、僕らにとって狭い谷間を見下す斜面にかたまっている小さな集落にあらゆる日常がすっぽりつまっていたのだ。しかも夏の始めだった、子供たちにとって分教場は閉じられている方がいい。)(「飼育」p.63.)(1996)『大江健三郎小説1』新潮社)

「사육」은 전쟁말기라는 시간을 설정하고 그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산골마을〉의 풍경에 이입시키고 있다. 특히 〈가설화장터〉나 그곳에 〈죽은 자의 뼈 조각〉을 채집하기 위해 모여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에 의해 야기된 암울한 시대상황을 상징하고 있으며, 홍수에 의해 현실세계와 격리되는 폐쇄설정에 의해 한층 더 절망적인 상황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의 폐쇄설정은 〈산골마을〉과 외부세계와의 일원적인 관계도식에 의한 폐쇄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골마을〉은 아이

들과 어른들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세계관을 장치함으로써 폐쇄의 의미를 양자의 관계 사이에 분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외부세계와 차단된 〈산골마을〉의 공간성과 결부시키고 있다.

〈산골마을〉에 폐쇄성을 부여하는 외부세계와의 공간적인 차단과 그것이 상징하는 절망적인 시대상황은 아이들의 세계관에 의해 전쟁의 파괴나 파멸과는 대조적인 우의적·목가적인 세계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낙하한 흑인병사를 적으로 간주하는 어른들과는 대조적으로 적이 아닌 異人으로 받아들이며 폐쇄된 공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간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세계와의 공간적인 차단은 전쟁이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상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골마을〉의 공간조형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세계는 오에의 최초의 장편소설인 『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감화원의 소년들이 〈산골마을〉에 집단적으로 소개되어 온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死者가 생기게 되고 마을의 어른들은 역병을 피하기 위해 소년들을 버리고 집단적으로 퇴거해 버린다.

골짜기를 건너는 화차궤도의 건너편 산등성이 가까운 부분에 나무 그루터기나 판자, 침목, 게다가 바위 등 악의로 가득한 일종의 바리케이드가 만들어져서 우리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가느다란 궤도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것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즉시 붕괴하는 바위나 나뭇조각에 다리가 걸려 골짜기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바리케이드는 실로 견고한 벽처럼 버티고 있었고, 게다가 위험하고 취약한 함정으로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 아래에서는 격렬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집요하게 불어난 물의 여운을 전하며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다.

(谷を渡るトロッコの軌道の、向う側の山肌に近い部分に、木の根株や板、枕木、それに岩などで、悪意にみちた一種のバリケードが造られてい、僕らを遮断しているのだ。細い軌道の上へうずたかく積みあげられたそれに乗こえようと試みることは、たちまち崩壊する岩や木片などに足をからまれて谷底へ墜落することに他ならないだろう。そのバリケードは実に頑丈な壁のように立ちほだかり、しかも危険な脆弱さをはらむ畏としてそこにあった。そして深い谷底からは激しい水音が川上の執拗な増水のなごりをとどめてあれ狂っているのだ。)
(『芽むしり仔撃ち』 p.173.)(1996) 『大江健三郎小説1』新潮社)

『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산골마을〉에 격리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장애물을 설치하고 외부세계와 〈산골마을〉을 공간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즉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와의 단절이 〈산골마을〉의 폐쇄성을 생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른들의 세계와의 단절은 〈산골마을〉에 남겨진 소년들을 내면적인 폐쇄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그려지고 있다. 현실세계와 차단된 〈산골마을〉은 어른들을 배제하고 아이들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형성함으로써 일본인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온 제일 조선인 소년과 근대국가의 예측에서 벗어난 탈주병과 같은 〈근대일본〉의 주변적 존재들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오에는 이러한 현실세계와 차단된 〈산골마을〉의 공간조형을 외부의 역사, 즉 전쟁과 같은 시대상황을 투영하는 지형적인 구조⁹⁾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에는 작품 내의 〈산골마을〉의 공간조형에 외부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어른들과 독자적인 세계를 희구하는 아이들이라는 이분법적 시점을 구도화함으로써 스스로 이상향의 세계의 불가역성이라는 한계를 초래하고 만다.

우선 「사육」의 경우를 보면, 〈산골마을〉은 홍수로 인한 공간적인 차단에 의해 「초등학교의 분교장이 폐쇄되고, 우편물이 정체」되는 등, 문명세계를 구가하는 〈읍내〉의 근대국가의 통치 시스템으로부터 일탈된 공간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와의 차단에 의해 부여된 아이들과 흑인병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감의 가능성은 〈읍내〉의 명령에 순응하는 마을 어른들에 의해 부정되어지고, 파괴되어진다.

회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흑인 병사를 인계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서기가 방언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군대가 흑인 병사를 인수하러 오기로 했었지만, 군대 내부에 혼선과 혼란이 생겨,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읍내》로 이송할 것을 부탁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서기는 말했다. 어른들의 곤혹스러움은 흑인 병사를 이송하는 일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놀라움과 실망의 나락에 빠져있었다. 흑인 병사를 인계한 뒤, 마을에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여름은 공허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會議が始まるとすぐ、黒人兵を県に引きわたすことになったという意味のことを書記が方

9) 大江健三郎(2001)「小説の神話宇宙に私を探す試み」『大江健三郎・再発見』集英社, p.22.

言で説明し、子供たちを打ちのめした。そして、軍隊が黒人兵を受取りにくる筈だったのに、軍隊の内部に行きがちいと混乱があるらしくて村の方で《町》まで運びおろしてくれと
いってきたのだと書記はいった。大人たちの困惑は、黒人兵を運びおろすという作業によっ
てひきおこされるものだけにすぎない。しかし、僕らは驚きと失望の底にいたのだ。黒人兵を
引き渡す、そのあと、村に何が残るだろう、夏が空虚な脱けがらになってしまう。)(「飼
育」p.87.)(1996)『大江健三郎小説1』新潮社)

〈산골마을〉의 어른들은 〈읍내(町)〉에서 파견된 서기의 명령에 의해 흑인병사를 포로로서 수용하고, 다시 서기가 흑인병사를 梟에 이송할 것을 명령하자 이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아이들이 〈포획물〉이자 포로로서의 흑인병사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반해, 어른들은 외부세계의 영향력에 철저하게 종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간적인 차단에 의해 초래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수용하고 폐쇄상황의 〈산골마을〉을 자신들만의 우의적·목가적인 세계로 전환시켜 가는 것에 반해, 어른들은 외부세계에 종속하며 〈산골마을〉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골마을〉의 독자성에 반하는 어른들의 의식은 『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의 아이들을 심판하는 어른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에서는 집단퇴거에서 돌아온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의 공동체 세계를 부정하고, 탈주병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을에 역병이 돌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피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동의하라며 복종과 기만을 강요한다. 즉 의식적인 예속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태도에 의해, 〈산골마을〉의 자립적인 세계형성의 불가역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세계와 차단되어져 독자적인 세계의 가능성이 부여되는 〈산골마을〉은 그 구성원인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립 축으로 함으로써 역으로 근대문명세계의 예속에서 자유로운 장소의 불가역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골마을〉의 공간조형은 현실세계의 지배와 종속, 혹은 전쟁의 절망적인 상황을 투영하는 지형적인 구조로써는 유효한 모델이 되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3. 유토피아로서의 〈아프리카〉

오에의 초기문학에서 주인공들이 현실세계 외부의 이상향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현실세계의 틀 안에서는 〈自己〉의 근원으로서의 〈場所〉가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상향을 지향하는 의식은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ここより他の場所)」(『中央公論臨時増刊』1959.7)와 같이 현실세계를 벗어난 불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경우와 『외침소리(叫び声)』(『群像』1962.11)와 『개인적인 체험(個人的な体験)』(新潮社, 1964)과 같이 근대문명사회와 대립하는 원시적 공간을 지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근대문명사회와 대립하는 외부의 이상향의 구체적인 장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프리카〉이다.

오에 문학에 등장하는 〈아프리카〉는 「갈채(喝采)」(『文学界』1958.9), 『우리들의 시대(われらの時代)』(中央公論社, 1959), 『일상생활의 모험(日常生活の冒険)』(『文学界』1963.2~1964.2)에서의 〈북아프리카〉와 같이 백인지배에 저항하는 해방의 장소로 그려지는 경우와 『개인적인 체험』의 〈중부아프리카〉와 같이 탐험과 모험의 대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양자 모두 「「우리(檻)」나 「벽(壁)」밖에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¹⁰⁾.

아프리카처럼,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대륙의 지도는 낡아가는 것도 빠르다. 그곳에서 세계전도의 총체로의 침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는 것은 이 세계전도의 진부함을 단적으로 광고해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관계가 완전히 고정되어, 결코 더 이상 낡아가지 않는 대륙의 지도로는 어디를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아메리카 대륙, 그것도 북 아메리카 대륙?

(アフリカのように、めまぐるしく変化しつつある大陸の地図は、その古びかたも早い。そこから世界全図の総体への侵蝕がはじまるのだ。したがってアフリカの地図のページをひらいておくことは、この世界全図の古さを端的に広告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だろう。それでは政治関係がすっかり固定してしまって、もう決して古びない大陸の地図としては、どこを選ぶべきだろうか。アメリカ大陸、それも北アメリカ大陸?)(『個人的な体験』p.292.)(1996)『大江健三郎小説2』新潮社)

10) 拓殖光彦(1969.9)「戦後世代の文学キー・ワード—大江健三郎」『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p.96.

상기의 예문은 『개인적인 체험』의 주인공 버드(鳥)가 현실세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프리카〉를 이상향의 장소로 지향하며, 〈아프리카〉 지도에서 근대세계의 억압구도와 전후의 변화양상을 읽어내고 있는 장면이다. 버드는 현실세계에서 절망하고 억압받는 자신의 처지를 〈아프리카〉 지도의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예문에 보이는 「세계지도 총체에의 침식」과 같이 서구근대문명에 저항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통해 전후세계의 변화 양상을 실체화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의 신식민지주의에 대항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대칭축을 형성함으로써 전후일본의 〈감금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주의를 근대문명세계의 억압구조의 현재적인 형태로 투영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의 기능은 오에의 초기문학에 보이는 〈감금상태〉로서의 일본의 공간적 제약을 근대문명세계의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확대시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후일본의 〈감금상태〉를 신식민지주의에 저항하고 서구의 근대문명의 예속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통해 투영해냄으로써 전후일본의 시대상황을 〈아프리카〉의 지정학적인 요소가 환기하는 동시대상에 중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에가 미국 흑인문학의 영향을 받아, 억압된 흑인의 내면세계에 자신의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중첩시키고 있다는 점도 상기의 동시대상으로 확대된 일본의 〈감금상태〉를 보여 준다¹¹⁾. 즉 〈감금상태〉에서 억압된 주인공은 미국의 흑인의 억압된 내면과 중첩되고, 〈아프리카〉는 흑인의 근원의 장소라는 인종적 범주를 넘어 현실세계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이상향의 장소로 조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오에가 일본의 안보정국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의식」을 주창하고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에의 참가에 회의적인 〈젊은 일본회(若い日本の会)〉의 멤버를 비판하며, 미국 흑인문학의 반항정신과 저항정신의 모티브와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의식」을 동질시키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¹²⁾.

11) 이치조 다카오(一条孝夫)는 이러한 오에의 초기문학의 주인공상은 미국의 흑인 문학자인 리처드 라이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간과 정치로 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흑인문학과 공통된 테마를 다루면서 흑인이 처한 사회적·역사적인 배경을 회색시키고, 흑인문제와 아메리카에 종속되어 있는 일본의 상황을 단순하게 비유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一条孝夫(1997) 「「孤独な青年の休暇」と黒人文学」 『大江健三郎—その文学世界と背景』 和泉書院, p.158.

12) 大江健三郎(1991) 「強權に確執をかもす志」 『厳肅な綱渡り』 講談社, p.113-116./ 초출(1961.7) 『世界』.

미국 흑인문학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품인 「고독한 청년의 휴가(孤獨な青年の休暇)」(『新潮』1960.4)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흑인의 존재의의와 중첩되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실세계를 〈감금상태〉로 여기며 정신적으로 번민하는 주인공은 자신을 〈透明人間〉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透明人間〉이라는 말은 「흑인 연주가는 하찮으며, 바보 같으며, 여성의 성기를 속칭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녀석도 있으며, 버드(鳥)라는 통칭의 남자가 불세출의 알트 섹스폰 연주가이기도 하는, 무명자이고 투명인간이고 무의미하고 비중요하다」¹³⁾(p.49.)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백인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흑인들의 존재의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의 주인공 버드라는 이름은 이 「고독한 청년의 휴가」에 보이는 흑인 재주 연주가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전후일본의 폐쇄성과 주인공의 내면적인 억압상태에 미국 흑인의 존재성을 중첩시키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감금상태〉로서의 일본의 현실을 근대세계의 동시대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버드가 현실세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프리카〉를 지향하는 것은 버드라는 이름에 내재되어 있는 흑인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현실세계에서 억압받는 자가 자신의 근원의 장소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상실한 자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의를 회복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이상향의 의미가 부여되어있는 것으로, 이러한 〈아프리카〉의 공간적인 성격은 『외침소리(叫び声)』(『群像』1962.12)의 주인공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叫び声』의 주인공들은 전쟁참가를 기피한 호모인 미국인 다리우스 세르베조프와 흑인과 일본인의 혼혈아인 〈토라(虎)〉, 과도한 매독 공포증에 빠진 일본인인 〈나〉, 그리고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카(吳鷹男)〉와 같이 근대문명세계의 이항대립주의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일탈자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현실세계의 어떤 의식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라는 저 처참한 요코스카에서 아메리카 풍토와 같은 죽음을 맞이했다. 오해로 야기된 권총으로 인해 너덜너덜하게 부서진 머리와 육체에서 흐르는 피

13) 大江健三郎(1960.4)「孤獨な青年の休暇」『新潮』新潮社, p.49.

는 아프리카의 대 밀림의 천사들에 의해서 검은 사람들을 위한 하늘로 넘쳐 흘렀다. 그의 부친과 조부, 노예출신의 증조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조부들은 황금해안에서, 그들의 아들의 차가운 승천을 마중하고 있었다. (p.184.)/ 내가 괴물이라면, 나는 정말로 괴물이 되고 싶다. 괴물이 돼서 폭발해, 내 자신의 나라, 내 자신의 세계를 보는 거다. 토라가 요코스카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며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虎は、あのみじめな横須賀で、アフリカの風土のうちなる死をとげていた。誤解の拳銃によってぐしゃぐしゃにつぶれた頭をのせた虎の血を流す肉体はアフリカの大森林の天使たちによって黒い人間たちのための空へこぼれた。かれの父親と祖父、奴隷出身の曾祖父とはアフリカ大陸から、その父祖たちは黄金海岸から、かれらの息子の冬さなかの昇天をむかえていた。(p.184.)/ おれが怪物なら、おれは本当に怪物になりたい、怪物となって爆発して、おれ自身の国、おれ自身の世界を見るのだ、虎が横須賀で撃ち殺されながらおおむいてそこにアフリカの空を見たように)(『叫び声』 p.191.)(1996)『大江健三郎小説2』新潮社)

<아프리카>는 현실세계에서 소외된 주인공들의 안주의 장소로, 토라가 죽음을 통해 도달한 <자신만의 세계>이자, 문명세계에서 일탈된 소외되고 억압된 자들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상징하는 <아프리카>는 주인공들이 현실세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낸 내면의 도피처를 외부의 구체적으로 공간으로 실체화시킨 것으로 현실세계와 대립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피억압자들의 안주의 장소로서의 <아프리카>는 <이 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상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토피아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요코이 즈카사(横井 司)도 오에 문학의 유토피아적 성격에 대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작품 안에서 실재하는 장소로 구체적으로 대상화되어 서술되는 경우와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본래 유토피아란 말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인 ou(無)와 topos(所)의 합성어로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서구의 근대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의 역작용으로 <야만·미개>한 사회를 유토피아로 회구하는 <<아프리카> = 야만 = 유토피아>라는 <역유토피아>의 도식을 만들어 왔다¹⁵⁾. 즉 <아프

14) 横井司(1970.7)「大江健三郎のキーワード—ユートピア」『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學燈社. p.96.

리카〉를 유토피아로 회구하는 것은 오에 문학에 국한되는 특징이 아니라, 근대세계를 〈문명과 야만〉의 이항대립의 세계로 정형화 해온 서구의 근대 문명론적인 자의식의 하나의 양상인 것이다¹⁶⁾.

토마스 모어처럼 의식적으로 그 시대의 현실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설로가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의 공상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춰내버리는 경우에도 「어는 곳에도 없는 나라(유토피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미래의 인간의 초상을 떠올리는 것은, 명암이 뒤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인간을 떠올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우리들의 유토피아는 현실생활의 여러 빈곤과 그것에 밀착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너의 유토피아는 이라고 묻는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침묵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짓의 유토피아 환상으로 자신과 타인을 기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¹⁷⁾.

(トーマス・モアにおけるように、意識的にその時代の現実生活を研究すべく、ユートピアを思いえがく場合はもとより、シュルロのいうような、未来への空想がほとんど無意識的に、今日の現実を、直接、間接にさらけだしてしまう場合にも「どこにもない国(ユートピア)」について語ることは、自分の国について語ることであり、未来の人間の肖像をえがくことは、明暗は裏返しになっても、自分そっくりの人間をえがきあげてしまうことにほかならない。(中略)/ われわれのユートピアは、現実生活の様ざまな貧困と、そこにぐったり横たわっているわれわれの姿を映しだす鏡の役割を果たすにすぎないのである。きみのユートピアは、と問われれば、目下のところ僕には沈黙して逃げだすほかない。にせのユートピア幻想で自分と他人を欺すことができる時代はすぎさってしまった。)

15) 岡倉登志(1999) 「ヨーロッパ近代人の多様な野蛮觀」 『西欧の眼に映ったアフリカ』 明石書店, p67.

16) 이러한 예로 프랑스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1854-91)의 〈아프리카〉觀이 있다. 『지옥에서 보낸 한 철』로 잘 알려진 랭보는 생애 〈아프리카〉에서 유토피아를 회구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랭보의 〈아프리카〉觀에는 서구문명이 세계를 이항대립화 했던 문명과 야만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으며, 원시적인 〈아프리카〉像은 이교도의 야만의 땅으로 고정되어 있다. 랭보가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타이틀을 당초 『이교도의 書』 혹은 『흑인의 書』로 명명했던 것도 유럽이 중심화되어 있는 문명론적 시각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는 기독교적인 신의 부재의 장소로서 〈지옥〉을 형상화하고 있다. 西條八十(1967) 『地獄の一季節』 『アルチュール・ランボウ研究』 中央公論社, p.576-579.

17) 大江健三郎(1981) 「ユートピアの想像力」 『大江健三郎同時代論集3』 岩波書店, p.252-258./ 초출(1967.1.15) 『毎日新聞』.

상기의 인용문은 오에의 유토피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오에가 지적하는 〈현실생활의 다양한 빈곤〉이란,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정신의 상실이 초래한 절망감을 의미하며, 유토피아를 희구하는 의식은 그러한 정신적인 빈곤을 노출시키는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세계에 대한 자기기만이 〈거짓의 유토피아 환상〉을 낳고 있는 것으로, 오에 문학에서 외부세계를 지향하는 주인공들은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함으로써 현실세계를 초월한 근원의 장소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오에 문학에 보이는 〈아프리카〉 역시 현실세계에서 절망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억압된 내면이 만들어 낸 〈거짓의 유토피아 환상〉으로 근대 문명세계와 대립하는 원시공동체에 대한 희구를 나타내는 상징공간인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를 유토피아의 장소로 인식하는 것이, 유럽의 문명론적 세계관을 용인하고 〈아프리카〉를 야만으로 규정하는 〈역유토피아〉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오에 문학이 그리는 〈아프리카〉 역시 현실세계의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근원의 장소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근원의 공간으로서의 〈산골마을〉

『万延元年의 풋볼(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群像』1967.1~7)은 민속학적 경향이 보이는 첫 작품으로, 오에는 이 작품을 〈극복의 계기를 이룬 작품(乗越え点をなした作品)〉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⁸⁾. 그리고 〈극복〉의 방법에 대해 「동경에 나간 형제를 재차 산골마을로 불러들여 1960년대의 이야기와 백년 전의 이야기를 그 지형학적 구조 안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⁹⁾. 여기에서 〈지형학적 구조〉란 초기문학에 보이는 〈산골마을〉의 공간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万延元年의 풋볼』에서도 홍수에 의해 다리가 끊겨 현실세계와 차단된 〈산골마을〉이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万延元年의 풋볼』의 〈산골마을〉은 초기문학에서 이상향의 세계의 불가역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산골마을〉이 중기문학 이후의 오에 문학의 주제를 형성하는 현대인들의 근원의

18) 大江健三郎(1988) 「乗越え点として」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講談社, p.451.

19) 大江健三郎(1991) 「小説の神話宇宙に私を探索す試み」 『大江健三郎・再発見』 集英社, p.25.

공간으로 전환되어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万延元年의 풋볼』의 〈산골마을〉은 현실세계와의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폐쇄상태의 시대상황을 암유하고 등장인물의 내면적인 억압상태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문학의 〈산골마을〉의 성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골마을〉의 폐쇄상태는 기억을 매개로 한 시간의 역행, 즉 1960년대와 1945년, 그리고 100년 전인 〈万延元年〉의 사건을 〈공통의 시간〉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에 의해 오에가 말하는 〈극복〉의 가능성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작품의 두 주인공인 미츠(根所密三朗)와 다카시(根所鷹四)는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상실한 인물들로 도시에서 〈산골마을〉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산골마을〉로의 공간적인 이동을 귀향이라고 본다면, 미츠와 다카시에게 있어서 〈산골마을〉은 근원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츠와 다카시는 과거의 시간대에서 자기 동일성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의해 근원의 장소로서의 〈산골마을〉을 부정하는 자와 긍정하는 자로 분열되어진다. 미츠는 현실세계에서 좌절된 인물로 자신 스스로를 〈구덩이〉라는 폐쇄공간에 감금시키는 인물로 〈산골마을〉에서도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근원의 장소로서의 〈산골마을〉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카시는 현실세계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의의를 〈산골마을〉의 과거의 사건, 즉 1945년 여름의 〈조선인 부락 습격사건〉과 연관된 〈S兄〉의 기억과 근대로의 移行期에 발생한 〈万延元年의 농민봉기〉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아내려고 한다. 〈산골마을〉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자와 긍정하는 자에게 각각 근원의 상실과 근원의 회복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는 양의적인 공간으로 조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万延元年의 풋볼』의 공간적 특징에 대해 시바타 가즈지(柴田勝二)는 「산골마을이 서술자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귀환되는 곳임과 동시에, 자신을 위협하게 하는 양의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한다²⁰⁾. 다시 말하자면, 초기문학에서 현실세계의 예속에 의해 자기의 근원을 상실한 폐쇄공간으로 정형화되어있던 〈산골마을〉이 근대의 역사적 시간의 틀을 뛰어넘는 매개체로서 기억과 결부됨으로써 자기 동일성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양의적인 공간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20) 柴田勝二(1990.2) 「自己の解体」 『近代文学論集』 日本近代文学九州支部, p.73.

산골마을의 백성들의 봉기에 관한 꿈의 흐름이 전쟁 말기에 산골마을의 모든 집들에서 어른들이 한 집에 한사람씩 동원되어, 대나무 숲으로 대나무를 베러 갔던 날의 기억에 도달해, 그곳으로부터 역류해서 다시 万延元年을 향하는 새로운 꿈의 흐름을 만들었다.(중략) 万延元年과 전쟁 말기의 공통의 「時」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엄청난 수의 죽창을 베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죽창을 휘두르며 万延元年의 전투를 우세하게 이끌었던 사람들이며, 또한 비행기나 상륙용 주정의 측면 장갑에 육탄공격을 감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중략) 일찍이 체제에 반역하기 위해 대나무를 베어내던 선조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순응파 촌장들은 지금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대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자신들로부터 万延元年의 자취를 완전히 떨쳐버릴 것을 희망했던 것이다.

(谷間の百姓どもの蜂起に関わる夢の流れが、戦争の末期に谷間のすべての家々から大人が一軒一人ずつ動員され、大竹籾に竹を伐り出しに行った日の思い出にたどりつき、そこから逆流してまた、万延元年に向う新しい夢の流れをつくった。(中略) 万延元年と戦争の末期に共通の「時」を生きている百姓たちがしきりに動いて、おびたしい数の竹槍を切り出している。かれらは竹槍をふるって万延元年の戦闘を優勢に押し進めた人々であり、また飛行機や上陸用舟艇の装甲された側面に棄て身の攻撃をかけるべき人々である。(中略) かつて体制に叛逆するために竹を伐り出した先祖たちを恥じる順応派の村長たちは、いま国家に奉仕するために竹を削っている自分たちから、万延元年の翳をすっかり払いのぞくことを希望したのだ。)(『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pp.95-96)((1996)『大江健三郎小説3』新潮社)

작품의 두 주인공 중, 동생인 다카시는 100년전의 〈万延元年의 농민봉기〉를 현시점(1960년대)에 재현하는 〈상상력의 폭동〉을 통해, 〈万延元年〉과 1945년의 시간대의 간극에 보이는 차이를 포함한 반복을 실체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형인 미츠는 동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万延元年의 농민봉기〉의 정신을 부정한다. 그러나 상기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万延元年의 농민봉기〉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근대국가 일본의 제국 식민지주의와 자기 동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의 인용문에 제시되어져 있는 과거의 두개의 시간대는 현재의 자기 동일성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주체를 보여주는 시간대로 〈산골마을〉의 마을 사람들은 〈万延元年〉의 시간대가 의미하는 민중의 주체적인 정신을 부정하고, 근대국가 일본을 역사인식의 주체로 하는 시간대에 자기 동일성을 회구하고 있다. 과거의 두 시간대의 간극과 연동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자기 동일성의 변용은 시간적인 간극 사이에서 변질되어가는 〈산골마

을〉의 공간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골마을〉에 깃들여 있는 마을 공동체의 자기 동일성의 근원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문학에서 〈산골마을〉에 부여되어 있던 1945년 여름이라는 고정된 시간은 그 시간대의 배경이 되는 〈전쟁〉과 〈패전〉의 이미지를 통해 제국주의 일본의 폐쇄성과 그 시대상을 작품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 반면 『万延元年의 풋볼』은 기억을 매개로 하는 시간 역행의 장치를 통해 고정된 시간을 해체하고 〈산골마을〉에 양의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万延元年의 풋볼』은 양의적인 공간조형을 통해 국가 공동체 의식을 상대화하는 새로운 근대적 주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²¹⁾.

이러한 오에 문학의 공간조형은 일본인의 자기 동일성을 공간개념을 가지고 상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수렵을 하며 산 우리들의 선조(狩獵で暮したわれらの先祖)」(『文芸』1968.2~5)에 그 전형적인 개념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国男)의 공간개념을 전제로 일본인의 공동환상을 근대 문명론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결부된 자의식의 문제로 다루며, 작품 내의 공간을 도시와 〈산골마을=山〉로 구분하고, 근대적 공간인 도시는 문명적인 세계로 전근대적 공간인 〈山〉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세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오에는 공간구분을 전제로 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의식의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공간적인 이중 장치(도시=定住=문명/산=流浪=야만)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인 이중 장치(도시=현재=문명/산=과거=야만)를 허물어냄으로써 〈山人〉을 일본인의 잃어버린 기원, 즉 선조로 연결시키고 있다.

민속학자인 야나기다는 고대 일본의 공동체 의식을 설명하면서 공간적인 경계의식, 즉 산과 평야의 공간적인 구분을 통해 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경계심이 평야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고, 이것이 일본인의 기원인 〈常民〉의 원류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 다시 말하면 야나기다는 산과 들로 상징되는 이원론적 공간구분을 전제로 원시적인 공간과 문명적인 공간의 경계를 만들어 내, 일본인의 원류를 〈平民〉으로

21) 이러한 장소와 결부된 시간의 특징에 대해 나리타 류이치(成田竜一)는 「「현재」를 해석=인식하기 위해 기억이 방법화되고, 기억에 의해 장소가 구성되어 표상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즉,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에 의해 현재의 자기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말로, 장소에 부여된 고정된 시간(근대국가일본의 공동환상)을 흔들 수 있다면 현재의 자기 정체성의 의미변화도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成田竜一(1995, 春)「方法としての「記憶」——一九六〇年前後の大江健三郎」『文学』第6巻・第2号, p.64.

22) 赤坂憲雄(1991)『山の精神史—柳田国男の発想』小学館, p.325-330.

언설화하고 〈山人〉를 선주민으로 규정해 일본인의 기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²³⁾. 「수렵을 하며 산 우리들의 선조」에 보이는 공간개념은 이러한 일본인의 문명성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언설화한 야나기다의 발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오에가 〈산골마을〉을 일본인의 자기 동일성의 근원의 장소로 조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대나무 작대기가 들추어낸 것은 제대로 된 고환까지 달려 있는 합성수지의 페니스였다. 그것은 맑은 겨울 날 아래 전모를 드러내고 분명히 지금 우리들 구역의 중산계급층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것의 전체를 폭로하려고 하고 있었다.(중략)/ 그의 초연한 태도는 나 자신을 포함한 이 구역의 거주자들에게 수치스러움에 대한 역전을 냉정하게 방청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折れ竹がつつき出したのは、ちゃんと鞆丸も付属している合成樹脂のペニスだ。それは澄んだ冬日のもとにすっかりあきらかになって、いまやまぎれもなくわれわれの区劃のプチブルジョワのひそめている厭らしいものの全体をあばきだてようとしている。(中略)/ かれの超然とした態度は、僕自身をふくめてこの区劃の居住者への、恥の感覚に関わる逆転を冷静に傍聴しているものを感じられた。)(「狩猟で暮したわれらの先祖」 p.331)(1996)『大江健三郎小説3』新潮社)

「수렵을 하며 산 우리들의 선조」에서는 도시의 정주자들인 〈우리들〉이 유랑자인 〈山人〉을 야만스러운 자들이라고 단정하며 최근에 이 지역에서 나는 악취가 〈山人〉의 야만스러운 생활 때문이라며 쫓아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상기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山人〉가족의 청년에 의해 악취의 원인이 다름 아닌 도시인들의 문명생활의 감추어진 이면으로 밝혀지게 된다. 시가지의 심장부에 위치한 하수구에 은폐되어 있는 퇴적물들은 도시문명이 누적시켜온 문명의 오물로 특히 합성수지의 페니스로

23)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国男)의 일본선주민설의 논리로 활용되는 〈山人〉의 발상은 평지와 산의 공간적 경계를 일본인의 기원을 만들어 내는 논리이다. 야나기다는 『遠野物語』에서 〈山人〉를 실재하는 현재의 사실로 규정하며 일본인의 기원에서 배제하는 서술을 통해 역사를 구상하는 모델로서 의식내부에 타자를 설정하고, 일본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심층구조를 역사로서 실재하는 것으로 언설화하였다. 井口時男(1996)『起源の風景』『柳田国男と近代文学』講談社, p.13-16.

24) 오에는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国男)의 민속학적 발상에서 일본인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자연, 사회, 역사적인 상상력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의 일본인상을 새롭게 파악하려고 했던 야나기다 쿠니오 보다도, 우주—세계의 규모에서, 또한 세계—아시아의 규모에서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현대」에 있어서, 그 일본인상을 확실히 파악한다는 것은, 보다 절실한 것임에 틀림없다.」大江健三郎(1976)「力としての想像力」『言葉によって』新潮社, p.83.

상징되는 내면의 은밀한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 스스로를 문명세계로 우월시하던 〈우리들〉의 환상은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정주자=평지인=상민=국민〉을 역사적 기원으로 하는 근대일본의 국민적 동일성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민족개념의 국민공동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山〉과 〈平地〉의 공간개념에 근거해서 단일한 일본민족을 〈平地〉라는 공간개념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스스로의 문명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한 쪽인 〈山〉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차별해 왔다. 오에는 그러한 공간개념을 전제로 한 일본인의 공동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산골마을〉을 양의적인 공간으로 조형하고, 근대일본의 주변적인 공간을 자기 동일성의 근원의 장소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오에 문학의 공간조형은 그 공간개념과 연동하고 있는 자기 동일성을 통해 현재의 시대상황을 투영해 내는 작법이다. 초기문학에 있어서는 전후의 시발점이나 그것에 의한 시대상황의 변화를 투영하는 방향으로 공간조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문학에서 전후일본의 폐쇄상태를 아이들의 세계와 어른들의 세계로 분화시키고 있는 〈산골마을〉의 성격은 자기의 근원의 장소의 불가역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점은 오에의 초기문학의 주제인 〈감금상태〉에서도 보이듯이, 〈산골마을〉과 같은 현실세계와 대립하는 공간조형이 폐쇄된 전후일본의 시대상이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인 억압상태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에만 편향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골마을〉이나 〈아프리카〉는 현실세계의 고정된 시간, 즉 근대문명세계를 현재의 자기 동일성의 근거로 하는 공간개념에 의해 그와 대립하는 공간적 타자로 조형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곳을 이상향으로 지향하며 그 안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좌절하고, 현실세계를 초월하는 자기의 근원의 장소의 부재를 드러내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세계와 대립하는 공간조형의 제한된 성격은 그 공간에 양의적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새로운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산골마을〉은 1945년이라는 고정된 시간의 예측에서 벗어나, 근대일본의 역사적인 시간과 그것을 초월하는 기원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대와 공시적으로 연

결하는 장치가 더해짐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자기 동일성의 근원의 장소라는 가능성이 부여되게 된다. 오에 자신이 『万延元年의 풋볼』을 〈극복의 계기를 이룬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에 문학에 보이는 〈산골마을〉의 양의적인 공간적 성격은 현실세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상상력의 발휘를 의미한다. 60년대 중반 이후, 오에 문학의 중심개념으로 제시되는 〈중심과 주변〉의 논리는 이와 같은 초기문학에서 시도된 〈산골마을〉이나 〈아프리카〉 등, 근대세계의 주변공간의 조형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방법화한 것이다. 그 의미에서 볼 때, 『万延元年의 풋볼』이나 「수렵을 하며 산 우리들의 선조」에 보이는 양의적인 공간으로서의 〈산골마을〉의 가능성에는 전후를 살아가는 인간의 독자적인 자기 주체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오에의 전후인식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 赤坂憲雄(1991)『山の精神史—柳田国男の発想』小学館, p.330.
- ・ 井口時男(1996)「起源の風景」『柳田国男と近代文学』講談社, p.16.
- ・ 一条孝夫(1997)「「孤独な青年の休暇」と黒人文学」『大江健三郎—その文学世界と背景』和泉書院, p.158.
- ・ 大江健三郎(1958)『死者の奢り』文芸春秋新社.
- ・ ———(1960.4)「孤独な青年の休暇」『新潮』新潮社, p.49.
- ・ ———(1976)「力としての想像力」『言葉によって』新潮社, p.83.
- ・ ———(1981)「想像力的日本人」『大江健三郎同時代論集9』岩波書店, p.268.
- ・ ———(1981)「ユートピアの想像力」『大江健三郎同時代論集3』岩波書店, p.257.
- ・ ———(1988)「乗越え点として」『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講談社, p.451.
- ・ ———(1991)「強権に確執をかもす志」『厳粛な綱渡り』講談社, p.116.
- ・ 岡倉登志(1999)『西欧の眼に映ったアフリカ』明石書店, p67.
- ・ 黒子一夫(1989)『大江健三郎論』彩流社, p.125.
- ・ 柴田勝二(1990.2)「自己の解体」『近代文学論集』日本近代文学九州支部, p.73.
- ・ 拓殖光彦(1969.9)「戦後世代の文学キー・ワード—大江健三郎」『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p.95.
- ・ 成田竜一(1995)「方法としての「記憶」—一九六〇年前後の大江健三郎」『文学』第6巻・第2号, p.64.
- ・ 西條八十(1967)「地獄の一季節」『アルチュール・ランボー研究』中央公論社, p.576.
- ・ 渡辺広士(1994)「大江健三郎の内的世界」『大江健三郎』審美社, p.37.

要 旨

大江の初期文学における〈谷間の村〉と〈アフリカ〉は現実世界と対立する空間であり、時代状況の閉鎖性やそれによる内面的な閉鎖状態を暗喩している。しかし〈谷間の村〉は現実世界と対立する寓意的・牧歌的な世界を形成しながらも、一九四五年の夏、すなわち帝国日本の歴史的な時間に隷属する閉鎖性によって、自立的な世界形成に失敗しており、〈アフリカ〉も近代世界の文明と野蛮という二元論的な世界観から脱皮できない限界を露呈している。

一九六〇年代以後、大江文学の空間造形は〈中心と周縁〉という民俗学的な発想を受け入れることで、脱近代を表象する自己同一性の問題を文学的な主題としていく。大江文学は記憶を媒介に、現在と過去の時間を一つの〈時〉として結びつける発想を空間造形に取り入れることで〈谷間の村〉に両義性を与え、近代の歴史的な〈時〉やそれに根付いている国民共同体意識を乗り越え、多層的な自己同一性の空間を創り上げようとしたのである。

初期文学において、現実世界から隔離される空間造形を通して時代状況や内面の閉鎖状態を照らし出していた〈谷間の村〉と、そのような現実から逃げ出そうとする欲望が創り出していたユートピアとしての〈アフリカ〉への希求は、近代世界の隷属から自由な場所の不可逆性を浮彫りにするのみであった。しかし民俗学的な発想を受け入れてからの空間造形は、自己同一性の根源の場所、すなわち現実世界の閉鎖状態を乗り越えるための想像力の空間に変換されている。大江文学の空間造形は、固定されている近代世界の〈時〉に対する考え方を解体し、多層的な〈時〉をありうるものにすることで、自立可能な自己同一性の根源の場所を創り出しているといえよう。

キーワード：谷間の村、アフリカ、空間、ユートピア、監禁状態、戦後認識、民俗学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530-42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부영아파트5차 502동 907호
電 話 : 061-287-6890, 010-9002-0206
e-mail : minami70@naver.com